

맥쿼리 운용사 교체 주총 D-6

두패로 갈린 의결권 자문기관, 교체 vs 유지 '안갯속'

운용보수 절감 vs 수익 유지 불투명
자문사 찬반 의견 팽팽하게 엇갈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를 두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19일 주주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12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의결권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이 오는 19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MKIF) 운용사 변경 안전에 '찬성'할 것을 MKIF주주들에게 권고했다.

CGS는 보고서를 통해 "MKIF의 기존 보수체계는 유사 공모펀드 대비 높은 운용보수에 더해 성과 보수를 포함하고 있다"며 "플랫폼파트너스의 문제제기는 주

주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MKIF의 자산운용은 보유자산을 관리하는 수준이며, 향후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등 적극적 운용(Active Management) 필요성이 낮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10일자에 이뤄진 MKIF의 보수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모나 구조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CGS는 "신규 법인이사 후보자인 코람코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가 없고, 법인이사 교체가 투자자산들의 수익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MKIF 이사회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불식시켰다.

CGS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MKIF 운용사 교체에 '찬성'을 권고하며 "법인이사 교체를 통해 운용보수를 절감

하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라는 CGS의 핵심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도 운용사 변경에 '찬성' 의견을 냈다.

글래스루이스는 "맥쿼리인프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맥쿼리자산운용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며 "맥쿼리인프라 편입 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운용사의 역량 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신지배구조연구소, MKIF 운용사 교체 '반대'를 권고했다.

국내 주요 의결권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대신연)는 같은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MKIF) 운용사 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연은 임시주주총회의 운용사 변경 안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며 "신규로 변경된 법인이사도 그동안의 높은 초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연은 반대를 권고한 주요 근거로 MKIF의 긍정적 주주환원을 언급하며 "지난 7년간 국내 장기 회사채 수익률이 평균 2.84%인데 반해 MKIF주주에게 환원된 주주분배율을 7.01%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성과에는 맥쿼리자산운용(이하 MKAM)의 역량과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MKIF의 누적수익률이 연 9.4%를 기록하고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이 연평균 10%를 기록하는 등 법인이사의 운영 실적이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이 교체 운용사로 제안한 코람코자산운용(이하 코람코)과 비교에 있어

"전문운용인력과 과거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MKAM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운용 중인 12개 인프라 투자회사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등의 주주 가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패션기업인 LF가 최근 코람코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LF그룹에 인수된 후 코람코가 안정적으로 인프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ISS는 ▲ 해외 맥쿼리 펀드의 최근 보수 인하와 경영내재화(Internalization) 추이 ▲ 감독이사 1인의 긴 재직 기간 ▲ 보수 적정성 논란과 현재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운용사 후보 등을 언급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계절조정계열 기준) (평잔, 조원)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월	5월	6월	7월P
M1(협의통화)	734.4 (15.4)	802.0 (9.2)	842.1 (0.6)	843.5 (0.2)	845.5 (0.2)	844.8 (-0.1)
M2(광의통화)	2,342.6 (7.3)	2,471.2 (5.5)	2,596.0 (0.8)	2,607.7 (0.5)	2,621.2 (0.5)	2,634.5 (0.5)
L(금융기관유동성)	3,229.9 (8.1)	3,445.7 (6.7)	3,632.5 (0.6)	3,650.8 (0.5)	3,668.7 (0.5)	3,693.6 (0.7)
L(광의유동성) ¹⁾	4,231.9 (7.5)	4,501.6 (6.4)	4,650.9 (0.5)	4,677.9 (0.6)	4,673.1 (-0.1)	4,703.7 (0.7)

주: 1) L(광의유동성)은 말잔 기준 잔액 및 증감률. 2) ()내는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한국은행

7월 통화량 증가율 6.7%... 18개월 만에 '최고'

7월 통화량 증가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되면서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는 2634조500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평잔)으로 지난해보다 6.7%(원계열 기준)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6.9%) 이후 가장 크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와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증가율이 증가한 것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하반기 낮은 증가율에 따른 저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부문 통화량이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3조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3조7000억원), 기타부문(3조1000억원) 등에서도 통화량이 증가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특권에 힘입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지난달보다 10조원 늘었고, 특수은행의 은행채 발행 규모 확대도 금융채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금감원, 청년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까지 석 달간 한국청년회의소, 취업카페 등과 함께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수익 일자리라며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회의소는 오는 13일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총 59회 가드캠페인 또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카드뉴스와 웹툰을 제작해 금감원 및 청년회의소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유명포털 대표 4개 취업카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연루를 주의하라는 문구를 담은 배너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금리조정, ‘선제적’ 아닌 ‘신축적’으로”

신인석 금융통화위원 간담회

통화정책이 금리조정 고려할 때 다른 지표보다 '물가' 유의해야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고 실물경제는 잠재성장 경로에 있지만 금리 조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1970~80년대 고(高)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 저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 목표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달성을 위해 충실하게 정책운용하는 것인지,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기대물가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고려할 상황”이라며 간담회 내내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다른 경제 지표보다 ‘물가’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2013~2017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1.24%로, 한은의 정책 목표(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 이전 5개년 평균 3.3%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증가속도가 높아진 가계부채가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나 물가, 경기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은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특이 현상”이라며 “이는 기대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GDP갭, 즉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물가 상승률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의 일이었다. 2012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한 관리물가 충격도 유례없는 일이었다”며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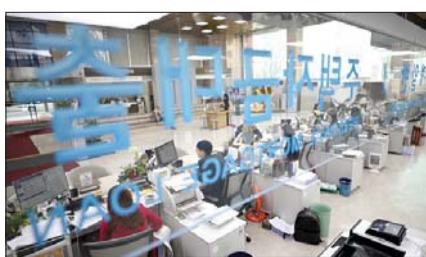
신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마무리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은행 가계대출 800조원 돌파... 주담대 증가 영향

지난달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8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정책목기지수를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80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1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9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량은 7월 6000가구에서 8월 8000가구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키웠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증가해

2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9000억원 축소됐지만 전월보다는 8000억원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면서도 “기타대출도 여름 휴가철 자금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은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5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김희주 기자